



한국인의 멋, 모시 이야기

강 욱

자유기고가

우리나라 모시의 섬세함과 색채는 흔히 매미날개 같고 눈과 같이 희다고 형용되었다. 한국인들은 여름 옷감 중에서 모시를 최고로 여긴다. 이는 모시가 속이 비칠 정도로 통풍이 잘되고 촉감이 깔깔해서 시원할 뿐만 아니라 땀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성질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시로 만든 옷은 빨면 빨수록 윤이 나고 색이 희어지기 때문에 입을수록 깊은 맛을 더하게 된다.

모시는 옛부터 나라의 진상품으로 올려졌음은 물론 외국과의 교역 때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였다. 나라에서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시길쌈 경연대회를 열었고 갖가지 길쌈 민속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 질이 좋기로 일찍부터 이름이 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시품의 품질이 훨씬 우수한데다 이를 짜는 여인들의 솜씨가 출중

하기 때문이었다.

모시는 벗긴 모시풀의 껍질을 잘 손질하여 실을 뽑아낸 후 수공으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 손이 매우 간다. 모시 길쌈 과정은 재배와 수확, 껍질 벗기기, 모시삼기, 모시 날기, 모시매기, 꾸리감기, 모시짜기의 순서로 이어진다. 특히 모시를 짜는 것은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필요로 하며 옷 두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한 필을 짜는데 보통 닷새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만큼 모시 직물은 품격이 높고 단아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여자들은 열 살도 되기 전에 길쌈을 익혀 평생 숙명처럼 베틀과 씨름해야 했다. 그래서 그 고달픔을 잊고 태만을 경계하기 위하여 길쌈을 하며 ‘삼삼기 노래’, ‘물레타령’, ‘베틀가’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추야공산 긴긴밤을 전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벼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우러떨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씨앗죽은 편지여라 올타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드니 소금반찬 고춧구라
꾸리꾸리 모시꾸리 박달나무 쇠망친가
오미상큼 감긴꾸리 삼천리를 열번간다

한산지방에 전해오는 ‘저산팔읍(苧産八邑) 길쌈놀이’에서 여인네들이 밤새워 모시꾸리감기를 할 때 부른 노래로 신세한탄이 절절이 배어있다.

모시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충남 서천의 한산(韓山)에서는 매년 5월 초순 ‘한산모시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 모시 축제는 전국 18대 관광문화제의 하나로 금년에 제14회를 맞고 있으며 국제적인 전통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한산 세모시가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빛깔을 자랑한다. 한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온 고장으로 매 5일 마다 모시 새벽시장이 형성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새벽안개 속에서 촛불로 모시의 진품을 가리는 시골 장터 모습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모시 중에서도 세모시는 예로부터 비단보다 더 비싸고 귀한 옷감이다. 남자의 고의적삼, 조끼, 두루마기와 여인의 치마, 적삼, 두루마기 감으로 사용되었다. 곱게 짠 모시로 만든 저고리는 속이 비칠 듯하며 옷감의 결에 따라 독특한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아른거리는 무늬에는 모시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모시에 얹힌 이야기도 많다. 여자에게 화냥기가 있을 때 ‘세모시 고쟁이’라고 빗댄다. 세모시는 고을수록 살빛을 많이 투과시킨다. 그 하얀 세모시 울울이 배어 나오는 살색이 사내들의 눈매를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후한(後漢) 때의 후궁들은 잠옷을 이 잠자리 나래 같이 투명도가 심한 세모시로 만들어 입었으며 투과된 살색으로 황제(皇帝)를 홀렸던 것이다.

어찌 보면 옛 부녀자들의 노출 선망이 모시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점잖은 집 부녀자는 약간 노리끼한 살색 모시는 야하다 하여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 알몸에 맞춰 입으면 화냥기의 빛깔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느 모시보다 필당 세 곱이나 비싼 값인 살색 모시의 수요층은 주로 기방(妓房)이었다고 한다.

모시의 원료인 저마(苧麻)는 껍질을 벗겨 모시를 짜는 용도 이외에도 민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잎을 찌먹기도 하는 구황식(救荒食)이기도 하였으며 민간요법의 약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저마의 잎은 피를 멎게 하는 지혈성분이 있다 해서 음력 5월 5일에 그 잎을 따서 음지에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먹거나 밀가루에 짓이겨 단자를 만들어 놓고도 먹는다. 다친 사람, 멍든 데, 내출혈에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마 잎을 말려 임산부의 벼갯속을 하면 산후의 출혈을 막아주고 복통이 멎는다 하여 주술(呪術)적으로도 이용했다.

또한 누에(蠶)에게 물려 독이 올랐을 때도 저마를 즈내어 마시면 낫는 다고 한다. 저마와 누에는 상극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누에치는 잠실 옆에 저마를 심으면 전혀 누에가 되지 않는다고도 알려졌다.

한여름에 잘 다듬어진 모시 한복을 차려 입은 여인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기품 있고 단아한 멋이 풍긴다.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은 깔깔하고 시원한 모시 덕분에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시는 기능과 아름다움이 모두 뛰어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기고 있다. 🍵

